

① 집중호우 · 침수

구분	학생 행동 요령
등교 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방송 매체(TV, 라디오) 및 인터넷(기상청), 기상상황 모바일 앱의 기상 상황을 확인한다. • 등교 시간 조정 및 휴업 여부를 확인(문자, 홈페이지, 교무실 전화 등)한다. • 우산·우비·장화 등 우천 대비 용품을 준비한다. • 되도록 밝은 옷을 입고 등교한다. • 구두나 슬리퍼는 침수 시 이동하거나 대피하기 어려우므로 집중호우가 예상되는 날에는 되도록 운동화를 신는다.
등·하교 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걸어가는 중에는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하고 주변을 경계한다. • 집중호우로 인하여 빠르게 흐르는 물은 피한다. • 저지대나 상습 침수지역은 침수 위험이 있으므로 우회하여 안전한 길로 등교한다. • 하수도나 맨홀 근처는 역류하거나 추락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피한다. • 물이 강하게 흐르거나 소용돌이를 일으키는 경우, 맨홀 뚜껑이 열려있을 수 있으므로 피해서 이동하고, 맨홀 뚜껑에서 기포가 나온다면 뚜껑이 갑자기 열릴 수 있다는 신호이므로 즉시 먼 곳으로 벗어난다. • 물이 고인 웅덩이나 도로를 피해서 가되, 불가피한 경우라면 도로 중심보다는 건물 외벽을 붙잡고 이동한다. • 간판 등의 낙하물이 있는 곳을 벗어나서 보행한다. • 신호등, 가로등, 간판 등 전기시설물은 감전 위험이 있으므로 최소 2~3m 떨어져서 보행한다. • 좁은 폭의 하천은 순식간에 물이 불어나므로 신속하게 벗어난다.
학교에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시설물 파손이나 누수, 침수 발견 시 즉시 선생님에게 알린다. • 위험지역으로 표시된 건물 등에 접근하지 않는다. • 저층에 있는 교실이나 지하공간에 내려가지 않는다. • 교내 전기 관련 시설이나 장비를 만지거나 근처에 접근하지 않고, 만약 전기 전원 차단이 필요하다면 선생님께 요청한다. • 학교건물 안으로 물이 들어올 경우에 119에 신고하고, 교실 안의 높은 곳으로 대피하거나 옥상 문이 열린다면 옥상으로 대피한다. • 침수로 인해 대피할 경우, 슬리퍼를 신지 않고 운동화나 실내화로 갈아신고 대피할 수 있도록 한다. • 대피 시 선생님의 통제에 따라 줄을 서서 이동한다.
가정에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가족과 재난 대책 회의를 통해 비상시 연락 방법, 대피장소를 정한다. • 외출은 삼가되, 부득이 외출할 경우 등·하교 시 행동요령을 따른다. • 침수되거나 고립 시 옥상 등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여 구조를 요청한다. • 반지하 등 지하공간에 빗물 유입 즉시 대피하여 구조를 요청한다. • 감전 위험이 있으므로 집 안팎의 전기시설은 만지지 않도록 한다. • 정전이 발생한 경우, 양초를 사용하지 말고 손전등이나 휴대폰을 사용한다.

2 태풍

구분	학생 행동 요령
등교 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방송 매체(TV, 라디오), 인터넷(기상청) 및 기상상황 확인 모바일 앱의 기상 상황을 확인한다. • 등교시간 조정 및 휴업 여부를 확인(문자, 홈페이지, 교무실 전화 등)한다. • 되도록 밝은 옷을 입고 등교한다. • 태풍으로 등교가 어려울 경우 선생님께 알린다.
등·하교 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걸어가는 중에는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하고 주변을 경계한다. • 전신주, 가로등, 신호등, 고압전선 근처는 가지 않는다. • 유리창, 건물 간판 등 낙하물이 떨어질 수 있는 장소를 피한다. • 강풍에 날리는 간판 등의 물건을 조심한다.
학교에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건물의 출입문, 창문은 닫아서 파손되지 않도록 하고, 창문이나 유리문에서 되도록 떨어져 있도록 한다. • 태풍으로 인한 시설물 파손 발견 시 즉시 선생님께 알린다. • 위험 지역으로 표시된 건물 등에 접근하지 않는다. • 대피 시 선생님의 통제에 따라 줄을 서서 이동한다.
가정에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가족과 재난 대책 회의를 가져 비상시 연락 방법, 대피 장소를 정한다. • 외출을 삼가되, 부득이 외출할 경우 등·하교시 행동요령을 따른다. • 건물의 출입문, 창문은 닫아서 파손되지 않도록 하고, 창문이나 유리문에서 되도록 떨어져 있도록 한다. • 강풍으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가급적 욕실과 같이 창문이 없는 방이나 집안의 제일 안쪽으로 이동한다. • 가스 누출로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차단하고, 감전 위험이 있는 집 안팎의 전기시설은 만지지 않도록 한다.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※ 물에 젖은 손으로 절대 전기시설을 만지지 않는다. • 정전이 발생한 경우 양초를 사용하지 말고 손전등, 스마트폰 등을 사용한다.



1 집에 있는 경우 문과 창문을 닫고 방송 매체(TV, 라디오), 인터넷(기상청) 및 기상상황 모바일 앱을 통해 기상 상황을 확인해요.



2 전신주, 가로등, 신호등, 고압전선 근처나 위험 지역으로 표시된 건물 등에 접근하지 않아요.



3 등·하교 시, 걸어가는 중에는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하고 주변을 경계해요.



4 유리창, 건물 간판 등 낙하물이 떨어질 수 있는 장소를 피하고, 건물 안으로 이동해요.